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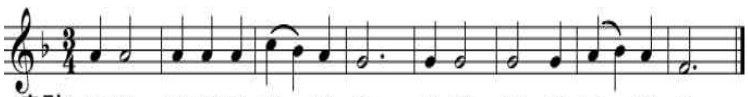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347-834-5784
212-736-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lskc.org@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예레미야 33,14-16

화답송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2독서 | 1 테살로니카 3,12—4,2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알렐루야.

복음 | 루카 21,25-28.34-36

성가 | 입당성가 [91]1~2 예물준비 [501]
영 성 체 [496] 파 견 [89] 1~3절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맨하탄 성당에서 믿음속에 고인이되신	-
전마사자 카타리나, 이재호 클레멘스	익명
전마지 마가렛, 이종환 토마스	익명
윤행일	윤동진
어머니 김주연 안나	송요셉
한주천 모니카	김민규요셉 김승현마리아
양세양 요셉	양미숙
오명옥 세레나	김민정 세라피나
김준일 베드로, 김영복 아녜스	김애자 헬레나
신순태 루피나 기일	손진숙 율리안나
김희석 영원한 안식	김승애 클라라
생미사	**봉헌**
윤동진	김승애
이재수 바르나바	김민찬 마티아
김재언 스테파노, 박효순 마틸다	김민규요셉, 김승현마리아
이상영 바오로 빠른회복	양미숙 마리아
윤요한, 루시아 부부 영육건강	김리나, 막달레나
남지혜 크리스티나 생일축하	한서희 데레사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12월 1일	정유진	손명근	민덕미	민덕미	김종선	한데레사 조바실리오
12월 8일	백이백	김진수	김승연	김승연	김영숙	한데레사 최사도요한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12월 영명일 맞으시는 교우분들! 축하드려요~ '▽'

12.2 비비안나 12.3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12.6 니콜라오, 아셀라
12.7 암브로시오 12.8 성모 마리아 12.9 요한 디다코(후안 디에고)
12.11 다마소 12.13 루치아, 오틸리아 12.14 십자가의 요한
12.25 아나스타시아 12.26 스테파노 12.27 사도요한
12.29 다윗, 토마스 베케트 12.31 실베스테르

▶주일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2024 대림특강 및 판공성사 주제 "기다림"

깨끗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수있도록 교우분들을 대림특강과 고해성사에 초대합니다.

강사 : 김학범 알퐁소 신부님(메리놀 미국관구 책임)
일시 : 12/15(주일) 미사직후 10:30-14:30
일정 : 강의 10:30-12:00
점심 12:00-12:30(김밥, 다미안 홀)
판공 12:30-14:30(아래성당 고해소)
고해사제 : Frs. 김학범 알퐁소, 김찬미 가비노(평화신문 미주지사장), 김진열 가롤로

▶2024 청년들을 위한 대림특강 및 판공성사

주제: "십자가의 성요한의 영성"

강사 :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님(이튼타운 성당 주임)
일시 : 12/14(토) 6시 청년미사중
일정 : 판공: 16:00-17:50(아래성당 고해소)
특강: 18:00-미사중 대림특강(아래성당)
고해사제 : Frs. 장재명 파트리치오, 김진열 가롤로

▶주님의 성탄 대축일 꽃 봉헌

꽃 봉헌을 받습니다. 봉헌금은 미국 본당에서 준비하는 성탄전례 꽃꽂이에 사용됩니다.

▶12/1(오늘)부터 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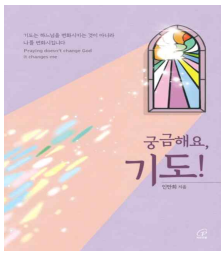
전례력(교회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 제1주일이며, '다해'입니다.

대림시기-영적 변화와 성장의 시기

▶영적서적 추천

대림시기, 교회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교우님들께 〈영적서적〉 추천드립니다. 영적독서는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가꾸어 지혜의 샘터가 되게 합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변화를 돕는 비결입니다.
*도서성물부(다미안홀)에서 구입가능합니다. $15
*도서내용 상세설명: 주보 3면

「치프리아노 주님의 기도」
이 책은 혼자 또는 함께 교부들의 작품을 읽고, 배우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운 안내서이다. 엮은이: 장재명 신부



「궁금해요, 기도!」
기도에 관한 질문과 고민을 모아 쉽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풀어준 책이다.
저자: 인만희 신부. 글라렛 선교 수도회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십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646-696-4680

▶성경공부반

신부님반	시편과 지혜문학	2,4째주 토. 10am~11:30am	2B
수녀님반	사도행전~요한묵시록	매주일 12:40pm~1:50pm	1B
		매주목 10am-11:20am	3A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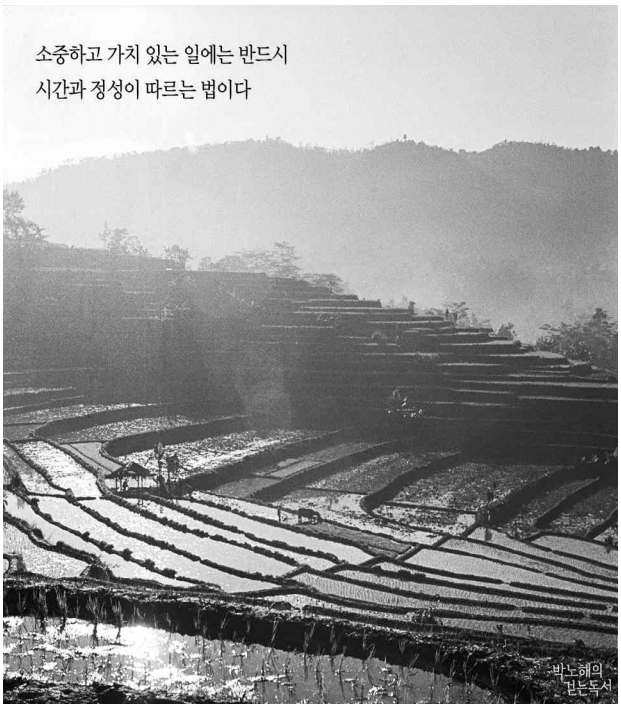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영적 서적〉추천 도서 다미안홀 '도서 성물부'에서 구입

「치프리아노 주님의 기도」

이 책은 혼자 또는 함께 교부들의 작품을 읽고, 배우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운 안내서이다. 가톨릭교회는 성경과 성전을 하느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두 가지 원천이라고 고백한다. 성전은 '교부들의 증언이 언제나 살아 있는 전통'을 말한다. 따라서 교부들의 저서를 읽는 것이 성전을 아는 데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 하겠다.'주님의 기도'를 해설한 치프리아노 성인의 작품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읽어 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엮은이: 장재명 신부. 로마 Augustinianum에서 교부학, 교부신학 //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NY10010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OCTO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NY,NY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NY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색소 미백 레이저
주름 보톡스, 필러
212.697.1802
카카오톡 : clearlasercity1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궁금해요, 기도!」 저자: 인만희 신부. 글라렛 선교 수도회

기도에 관한 질문과 고민을 모아 단순하고 명쾌하게 풀어준 책이다. "기도할 때 자꾸 분심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미사가 지루하게 느껴져요" 등 기도가 되지 않아 끙끙대는 우리 모두의 물음에 하나하나 답을 남기는 방식이라 더욱 반갑다.

은총의 세례성사

"하느님께서는 이 영혼들을 통하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11월 10일 미사 중에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6명의 세례자와 신부, 수녀, 대부모

세례자: 김아현(에밀리아) 국유진(가브리엘라) 김지영(마리아) 최재문(시몬) 박준영(마르티노) 하서현(이사벨)

김아현 에밀리아 "세례를 받으며 하느님 안에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 기쁩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씩 배워가며 저의 신앙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를 내가 만나는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세례받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로운 시작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국유진 가브리엘라 "세례를 받을 때 하느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감동이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김지영 마리아 "세례성사가 진행될 때 저는 그동안 세례를 준비하며 걸어왔던 시간들이 떠오르며 하느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첫 영성체를 모시고 기도드리며, 이날 세례명 마리아로 호명된 하느님의 딸로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살고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첫걸음에 함께해주신 신부님, 수녀님, 대모님, 가족, 친구와 모든 교우분들께 큰 감사드립니다."

최재문 시몬 "저에게 세례를 준비하던 시간과 과정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기쁨이 있었고, 영성체를 모시고 자리로 돌아와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느꼈습니다."